



1



2

1 하동군청  
2 윤상기 군수  
3 드론으로 촬영한 신호등 없는 하동군



3

## 하동군, 회전교차로 설치로 도시 경쟁력 강화

하동군이 미래 100년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최상의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신호등 없는 선진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 신호등 없는 도시 왜 만들게 됐나

신호등 없는 도시는 '공유공간' 철학을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 교통공학자 한시 문더만이 창안한 도시 디자인과 교통 설계의 신개념이다.

1979년부터 2002년까지 네덜란드 북부 3개 주의 교통안전 책임자였던 문더만은 교통신호와 표시들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공유공간의 핵심은 분리가 아닌 통합, 규제를 벗어난 자율이라고 정의했다.

네덜란드 북부에서 시작된 공유공간 개념은 이미 전 세계로 퍼져 미국, 캐나다, 남미, 호주, 뉴질랜드 등에 이어 점차 아시아 국가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동군은 지리적으로 동서 및 남해안권 중심에 있어 경상도와 전남·북을 잇는 국도 2호, 19호, 59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또 지리산국립공원과 섬진강,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연간 800만명이 찾는 관광도시다. 그러나 주요 통과지인 하동읍 교차로 대부분이 점멸등과 신호체계를 갖춰 통과시간이 필요 이상 길어지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됐다. 이에 하동군은 2016년부터 철저한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새로운 도시 경쟁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호등 철거와 회전교차로 설치라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교통환경·문화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나

2016년부터 시작된 회전교차로는 읍내·섬진교·송림·군청 등 국도 2호와 19호, 59호선이 교차하는 하동읍권 4개 지점에 먼저 조성돼 신호체계가 모두 사라졌다.

이후 우측통행 우선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면서 교차로 통과시간과 사고율이 대폭 줄어들고, 회전교차로 주변에는 카페와 상점들이 늘어 만남의 장소로 활성화됐다.

하동군은 지난해 하동읍 외곽에 위치한 신 하동역사와 시가지에 위치한 옛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 중앙·화산·비파 등 3개 회전교차로를 추가 설치했다. 이는 도심과 외곽을 하나로 잇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도 연말까지 금남, 횡천, 진교, 옥종면 등 4개 면에 5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남해고속도로 하동IC에서 하동읍내로 진입하는 방문객이 신호체계에 따른 불편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 체계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신호등 없는 도시 효과는

교통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교차로 통과시간이 평균 45.6초에서 7.8초로 크게 단축됐고 이로 인해 서비스 수준은 'C·D' 등급에

서 'A' 등급으로 개선됐다. 경제적 효율 또한 매우 증가했다. 군은 현재까지 10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로 총 52억4천만원을 투입했다.

이들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 운행 비용 연간 39억7천만원(21%), 통행 시간 비용 97억8천900만원(82.3%), 교통사고 비용 6천900만원(3.6%), 환경오염 비용 1억400만원(26.3%)이 각각 절감돼 전체적으로 138억7천만원의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높은 녹시율이 확보되는 등 도심 미관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공간 가치 증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윤상기 군수는 "신호등 없는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하동군은 교통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 통합적인 도시발전 관점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알프스하동 100년 경제 창출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